

김혜민

김혜민(HyeMin Kim)은 과일을 주제로 회화, 설치,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다.

과일 속에 숨은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을 탐구하며, 먹고 버려지는 껍질, 씨앗, 줄기 등을 새로운 창작의 소재와 오브제로 재탄생시키는 순환적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Circle Back; 잇다. 입다>에서는 오렌지 껍질로 제작한 레진 비즈를 활용한 업사이클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Inside the Fig:

엄마와 딸을 위한 리버서블 토트백

무화과는 작가에게 과일 작업의 시작을 열어준 특별한 존재이다. 지금도 무화과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의 상상력과 창작의 영감이 되살아난다. 작품은 무화과의 겉과 속, 그리고 성인이 된 현재와 어린 시절의 동심을 모티프로 한 리버서블 토트백이다. 작품은 무화과의 겉과 속처럼, 서로 다른 두 이미지를 하나의 가방 안에 담아냈다.

한쪽은 성인을 위한 토트백, 다른 한쪽은 아이를 위한 토트백으로 구성되어 엄마와 딸이 가방을 뒤집어 함께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





아이를 위한 면에는 토끼 인형과 함께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형 패브릭 캔버스를 더했다. 동봉된 패브릭 크래용으로 자신만의 토끼를 그리고 상상 속 이야기를 채워 넣으며, 가방은 아이의 손을 거쳐 비로소 완성된다. 이는 패션을 단순히 입는 대상이 아닌, 동심과 상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오브제로 확장하는 시도이다.

가방을 뒤집는 행위는 단순히 안과 밖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아이의 시선을 오가며 잊고 지냈던 동심을 다시 마주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두 세계는 하나의 가방 안에서 이어지고, 그 순환은 이번 전시의 주제인 <Circle Back>의 의미를 담아낸다.



*패브릭 크래용을 포함한 모든 부자재는 리사이클된 중고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 패브릭 크래용은 채색 후 덧천을 올리고 다림질하여 열로 고정하면 세탁 후에도 그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